

<https://doi.org/10.22643/JRMP.2016.2.2.61>

## Successful publication of the second year JRMP

Jae Min Jeong<sup>1,2,3\*</sup>

<sup>1</sup>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sup>2</sup>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sup>3</sup>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우여곡절 끝에 2년차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JRMP) 편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올해는 제 1호에 논문을 8편 밖에 못 실어서 제 2 호에 12 편의 논문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다. 특히 간행이사의 노력이 처절할 정도였다. 사실 올해 20편을 채우지 못하면 JRMP의 폐간을 심각히 고려해야할 상황이었다. 연간 20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앞으로 과학기술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학술지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국내 과학이나 의학 학술지 발간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는 모든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SCI(E) 논문에만 원고를 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보다 먼저 모든 대학교나 연구소 또는 연구비를 주는 정부기관에서 SCI(E)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에 20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는다는 것은 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거기가 부편집위원장을 비롯하 모든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SCI(E) 등재지의 논문이 아

닌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JRMP에 출판하는 것이 완전한 헛수고는 아니다. 특히 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외국에서도 물론 Impact Factor (IF)가 높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경향은 있고 외국 학술지들간에도 IF 경쟁은 치열하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연구원을 뽑을 때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IF 보다는 발표한 내용을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추천자의 업적이나 추천 내용,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같이 토론을 했는지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력서에 JRMP에 발표한 논문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있으면 물론 매우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발표 내용을 인정하여 그 사람의 평가에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천자가 추천서에 내용을 넣기도 쉽게 해 주니 여러가지로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JRMP는 우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 등록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JRMP와 같은 신규 학술지는 논문 수가 적어서 KCI 등록에도 어려움이 많다. 기본적인 논문 편수가 충족되어도 논문 심사에서 게재율이 너무 높

November 18, 2016 / Revised: December 10, 2016 / Accepted: December 14, 2016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

Copyright©2016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으면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게재율이 70% 미만이 되면 100%인 경우 보다 5점이 높는데 이는 매우 큰 점수 차이다. JRMP의 게재율이 70%가 되려면 논문 투고 숫자가 거의 30편은 되어야 하고 이 중 10편은 게재 거절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편집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질, 온라인 편집, 연구윤리 규정 제정, 논문의 형식, 논문심사제도, 등 많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편집위원회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2016년을 보내며 2017년에는 우리 회원 모두가 더 좋은 연구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더 많은 좋은 논문이 JRMP에 투고되어 방사성의약품 분야의 중요한 지식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